

I. 시작하는 말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주님은 은혜로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II. 중심 말씀

1. 예수님께서서는 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들이 종종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지만, 항상 다툼의 자리가 되곤 했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은혜가 없는 그 곳에 참 은혜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2. 자리가 은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따라 무엇인가 변화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 이미 복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복되지 않게 여기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를 찾아서, 베데스다에 왔지만 은혜를 경험하진 못한 채 뒤에 남겨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눔 질문) _____

3. 우리는 우리의 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자신이 왜 낫지 못하고 있는지만 대답할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른 채, 자기의 답만을 가지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그 병자는 결국 자신의 답이 아닌 예수님의 답으로 나음을 입게 됩니다.

나눔 질문) _____

III. 정리하는 말

은혜가 없는 다툼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는 답으로 은혜를 기다리며 불평하던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을 다가오셔서, 참된 은혜를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가진 이러 저러한 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1. 환영의 시간(Welcome) : 행복한 기억 나누기

◆ 임재찬양

-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 마음문 열기 : 한 주간 감사 나누기, 게임

2. 경배의 시간(Worship) : 복음성가나 찬송가로 경배하기

◆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찬202)

- 1)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 2)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댄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 3)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 4)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 5) 주 예수 날 사랑 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후렴)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 쏟아놓는 기도 :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걱정

◆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 말씀 나눔의 시간(Word) : 구체적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 말씀 나눔 및 결단의 기도

◆ 기도제목 나눔 및 합심 기도

4. 사역의 시간(Works) : 역사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

◆ 교회를 위한 기도 -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 한반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정자를 위하여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 해외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